



Business Focus

2023년

41st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January 2023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 02-2112-7095

E nkim15@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T 02-2112-3918

E yeom@kr.kpmg.com

정미주

선임연구원

T 02-2112-4802

E mijujung@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 | |
|--|----|
| 2023년 41 st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 3 |
|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본 2023년 제약·바이오 주요 트렌드 | 4 |
| - ①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의지 확인 | 5 |
| - ② 혁신 신약 및 수요 미충족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 8 |
| - ③ 국내 CDMO 기업의 핵심 KPI는 생산능력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 10 |
| 국내 참가 기업 주요 발표 내용 | 12 |
| 2023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중 발표된 투자 | 13 |

2023년 41st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요

2023년 1월 9일 ~ 12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41st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약 550여 개 기업에서 8,000여 명이 참석하여 12,000건 이상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

제 41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 항목 | 내용 |
|---------|---|
| 주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J.P. Morgan |
|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심포지엄 |
|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샌프란시스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 개최 |
|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1월 9일 ~ 1월 12일 (美 샌프란시스코 기준) |
| 참가 규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최측이 발표 및 파트너링 참가 기업을 사전 선정·초대 제약·바이오 기업 550곳, 약 8,000여 명 참석 12,000건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 진행 |
| 컨퍼런스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표 (메인 트랙, 아시아태평양·중남미 트랙 등) 파트너링 미팅 |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Why JPM Healthcare Conference?

- 투자의·투자에 의한·투자를 위한
 - 1983년 샌프란시스코 소재 H&Q 투자은행에서 개최한 컨퍼런스로 2000년부터 J.P. Morgan 주최
 - 전시회 없는 행사로 IR 기반의 비즈니스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CEO 발표 중심의 행사
 - 주가 변동 모니터를 통해 발표와 동시에 해당 기업의 주가 향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
 - 발표하는 트랙 및 참석자 수로 현재 어떤 기업과 기술이 주목받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
- '제한적'이라서 더욱 '생산적'인
 - 주최측이 발표 및 파트너링 참가 기업을 사전 선정·초대
 - 기업의 시가총액 순위로 발표 시간·공간을 배정하여 철저한 비즈니스 가치 서열에 따르며, 바이오 기업에게는 참가 자체가 해당 기업의 유망성을 보여주는 지표
 - 코로나19 이전에 참가 기업들이 행사장 주변에 개별 미팅 공간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투자, 파트너링 등을 모색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본 2023년 제약·바이오 주요 트렌드

2023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 본 제약·바이오 업계 주요 트렌드는 ‘글로벌 빅파마 M&A 의지 확인’, ‘혁신 신약 및 수요 미충족 시장 관심 증대’, ‘국내 CDMO¹⁾ 기업 생산능력 강화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도출

2023년 제약·바이오 주요 키워드: M&A, 신약, CDMO 생산능력으로 도출

1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의지 확인

- 글로벌 빅파마 기업인여현금흐름 역대 최고치로 M&A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
- 노바티스, BMS, 애브비, 머크,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드존슨, GSK 등 빅파마는 메가 딜을 지양하면서 각사의 파이프라인을 강화·보완하는 관점에서 후보군을 모색 중

2

혁신 신약 및
수요 미충족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 모더나와 화이자는 엔데믹 전환에 맞춰 mRNA 기반 신약 개발을 확대하는 등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역량 강화
- BMS, 노바티스, 사노피 등의 글로벌 빅파마는 혁신 신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수요 미충족 제품 시장의 M&A 사업 전략 제시

3

국내 CDMO 기업의
핵심 KPI는
생산능력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 바이오 CDMO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설비 확장과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음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세대 의약품으로 CDMO 포트폴리오 확장, 롯데바이오로직스는 BMS의 미국 시러큐스 공장 인수 후 국내에도 총 36만L 규모의 메가 플랜트 구축 예정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Contract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

①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의지 확인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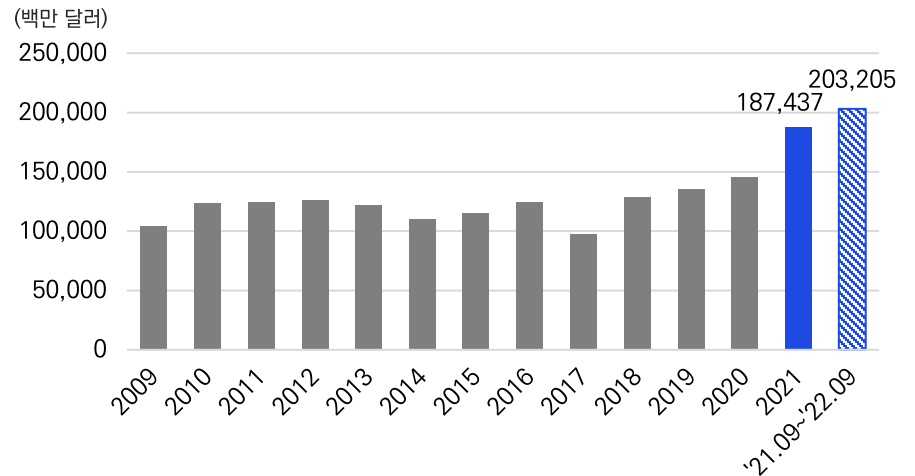
빅파마는 특허 만료로 인한 의약품 매출 감소에 대비하고 코로나19 엔데믹화에 따른 매출 구조 변화에 대응하며 미래 성장 동력원을 찾기 위해 바이오텍 M&A 고려 중. 기업잉여현금흐름도 역대 최고치로 M&A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

빅파마의 바이오텍 인수합병 검토 배경

| | | | |
|-------------------------|---|-----------|--|
| 특허 만료를 앞둔 의약품 다수 존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버스터 의약품¹⁾ 만료 시기별 구분 및 사례 | | |
| | ~2025 | 19개 만료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브비(AbbVie)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Humira)' 대표적 • '20년 기준 전체 매출 중 43% |
| | 2026~2032 | 39개 만료 추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S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Revlimid)'가 대표적 • '20년 기준 121억 달러 매출 기록 |
| 코로나19 엔데믹화에 따른 매출 하락 방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엔데믹화에 따른 매출 구조 변화 예상되며 일부 빅파마의 경우 코로나 이후 매출 하락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M&A 고려 모더나 '22년 매출 약 23조 원 달성했으나 '23년 예상 매출은 약 6조 2,000억 원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 110~130달러 수준으로 인상 검토 -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M&A 적극 활용 계획 | | |

전 세계 상위 15개 제약사¹⁾ 기업잉여현금흐름(FCFF) 추이²⁾

- 2021년 말 상위 15개 제약사 FCFF는 1,8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
- 2021.9~2022.9의 FCFF는 2,032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중
- 풍부한 재정 여력은 바이오텍 인수합병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원 확보에 긍정적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전 세계 제약시장에서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달성하는 의약품

Source: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2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의 '2021 제약사 판매 현황' 기준 (화이자, 애브비, 노바티스, 존슨앤드존슨, 로슈, BMS, 머크, 사노피, 아스트라제네카, GSK, 타케다, 글리어드, 일라이 릴리, 암젠, 노보 노르디스크)
 Note 2): 각 사 연도별 FCFF 합계 및 2022년 9월 기준 최근 12개월의 FCFF 합계(최우측) 제공. 단, 2022년 9월 기준 최근 12개월 합계 미제공사인 사노피는 2021년 6월~2022년 6월 데이터 사용

①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의지 확인 (2/3)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노바티스, BMS, 애브비, 머크는 풍부한 재정 여력을 토대로 유망 바이오텍에 대한 M&A 의지를 표명. 각사가 집중하고 있는 치료영역에 초점을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군 모색에 초점

노바티스·BMS·애브비·머크의 M&A 추진 방향성 및 주요 검토 분야



- 노바티스는 “자사 사업 전략 및 방향에 부합하는 바이오텍 M&A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4조~6조 원 사이의 거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
- 2023년 노바티스의 성장율을 4%대로 제시하면서, 특히 5대 치료 영역인 심혈관 질환, 면역, 신경, 고혈압, 혈액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므로 5대 분야 또는 5대 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바이오텍이 거래 후보군으로 전망됨



- BMS는 “2030년 BMS 수익의 절반 가량은 M&A 결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M&A를 비롯 사업 개발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발표
- 2019년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개발 기업인 셀진을 740억 달러에 인수했고, 2022년 폐암치료제를 개발하는 터닝포인트를 41억 달러에 인수하는 등 BMS는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M&A 기초를 보여주고 있음



- 애브비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휴미라(Humira)의 특허 만료로 인한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공격을 최소화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을 두면서도 M&A를 통한 사업 기회 모색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 2030년 이후 애브비의 성장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이오텍을 찾고 있는 가운데 특히 면역, 종양, 신경, 에스테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머크는 M&A를 “The best external science”라고 언급하며 성장 전략으로서 M&A를 확장해 갈 것이라고 발표. M&A 시 제 1순위 원칙은 ‘잠재력’으로 대상 기업이 머크의 사업 분야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지 심사하는 것
- 머크의 성장 전략의 핵심은 키트루다(Keytruda)를 비롯한 항암 신약개발의 지속적인 확장과 자궁경부암 백신인 가다실(Gardasil)을 비롯한 항암백신 개발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① 빅파마의 바이오텍(Biotech) 인수합병 의지 확인 (3/3)

존슨앤드존슨,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및 GSK도 풍부한 재정 여력을 토대로 M&A 의지를 표명. 각 사는 수요 미충족 분야 대응, 기존 파이프라인 강화, 전 사 포트폴리오 완성,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 M&A를 지향하며 기회 탐색 중

존슨앤드존슨·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GSK의 M&A 추진 방향성 및 주요 검토 분야



- 존슨앤드존슨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M&A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향후 거래는 주로 소규모의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
- 존슨앤드존슨의 향후 M&A 중점 검토 분야로는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안과 치료, 수술 로봇, 정형외과 및 심혈관 제품 분야를 제시



- 아스트라제네카 M&A의 추진 방향은 “아스트라제네카에 통합될 수 있고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라고 언급
- 41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심장·신장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바이오텍 ‘신코(CinCor Pharma)’를 인수하기로 발표하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포시가(당뇨병치료제)’와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발표



- 화이자는 2030년까지 M&A를 통해 250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22년 편두통 치료제 개발사인 Biohaven과 겸상적혈구 치료제 등을 보유한 GBT(Global Blood Therapeutics) 인수 단행
- 2022년 단행한 인수 규모가 중형 수준이며 향후에도 메가 딜은 지양할 것이라고 언급. 단, 전 사 포트폴리오 완성 관점에서 적합한 거래를 기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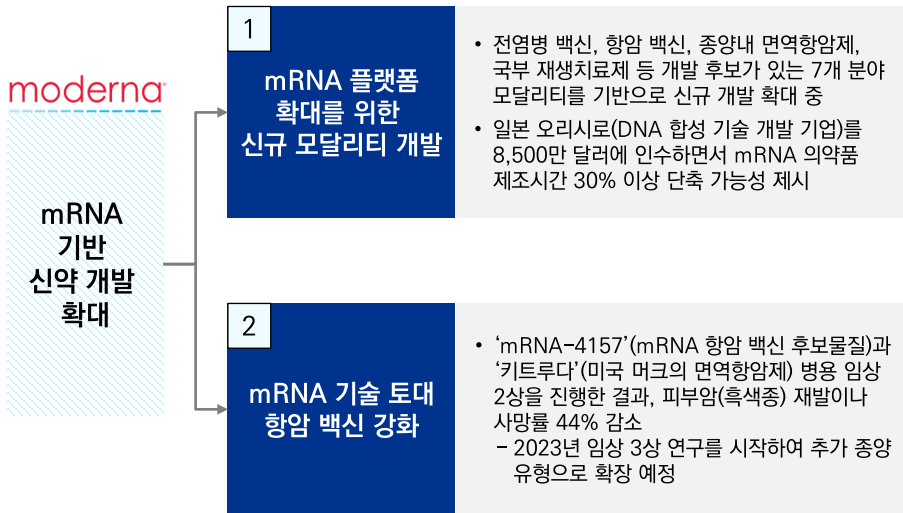
- GSK는 지속적으로 M&A를 위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후기 단계 파이프라인을 거래를 추진할 것으로 발표
- GSK가 2022년에 인수한 희귀 항암신약 개발사인 Sierra Oncology 인수가 M&A 추진 방향에 적합한데, 특히 거래 규모 측면에서 Sierra Oncology 인수 사례와 같이 10억~20억 달러 내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언급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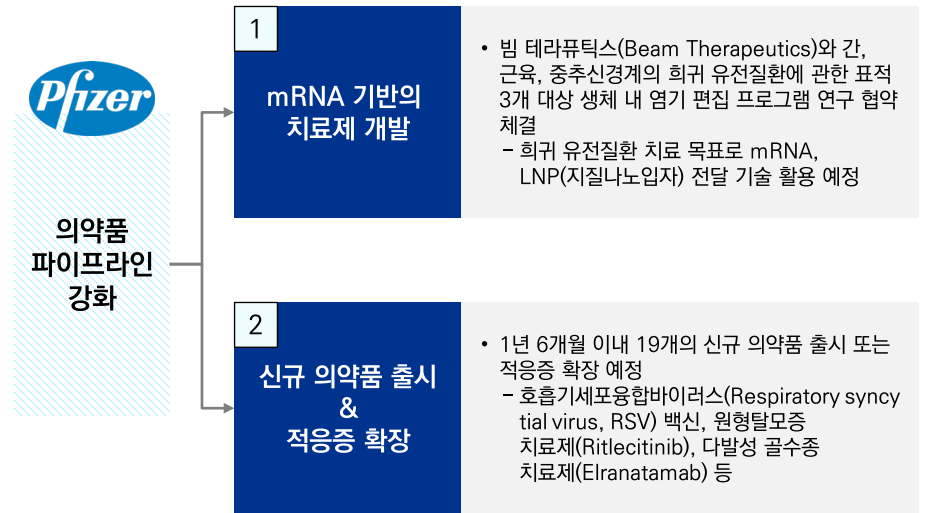
② 혁신 신약 및 수요 미충족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1/2)

코로나 백신 개발로 주목받은 빅파마는 엔데믹 전환에 맞춰 신약 개발 중.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모더나는 mRNA기반 신약 개발에 투자를 가속화할 것을 발표했으며 화이자도 신규 파이프라인 기반 개발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

모더나, mRNA 기반 신약 개발 확대



화이자, 신규 의약품 출시 및 적응증 확대로 파이프라인 강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② 혁신 신약 및 수요 미충족 시장에 대한 관심 증대 (2/2)

혁신 신약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빅파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가운데 BMS는 혁신 의약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확대, 노바티스는 미국 입지 개선, 사노피는 M&A를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 확장 전략 발표

브리스톨마이어스스쿼프(BMS)

암 및 기타 중증 질환 환자를 위한
혁신 의약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확대

- 마바캄텐(제품명: 캄지오스 Camzyos)는 폐쇄성 비대성 심근병증(HCM) 치료제로 FDA 승인
- 듀크라바시티닙(제품명: 소틱투 Sotyktu)은 TYK2 억제제로 FDA 승인
- 펠라트리맵(제품명: 옵두알라그 Opdualag)은 흑색종에 대한 면역관문억제제로 FDA 승인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노바티스(Novartis)

생물학적 제제와 첨단 기술 플랫폼으로
미국 입지 개선

- 심혈관, 면역학, 신경과학, 고형 종양, 혈액학 등 5가지 핵심 치료영역 개발
 - 심혈관 분야는 엔트레스토(Entresto), 렉비오 (Leqvio) 치료제 중심
 - 면역 분야는 코센티스(Cosentyx), 일라리스(Ilaris), 레미브루티닙(Remibrutinib), 이아날루맵(lanalumab) 치료제 중심
- xRNA, 방사선 리간드(Radioligand),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의 첨단 기술 플랫폼 확장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사노피(Sanofi)

혈우병A 치료제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백신 개발

- 출혈 장애인 혈우병A 치료제 '에파네스옥토코그 알파 (Efanesoctocog alfa)'는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심사 중
-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 백신 '니르세비맵 (Nirsevimab)'은 베이포투스(Beyfortus)라는 제품명으로 2022년 1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품목허가 승인 및 2023년 1월 기준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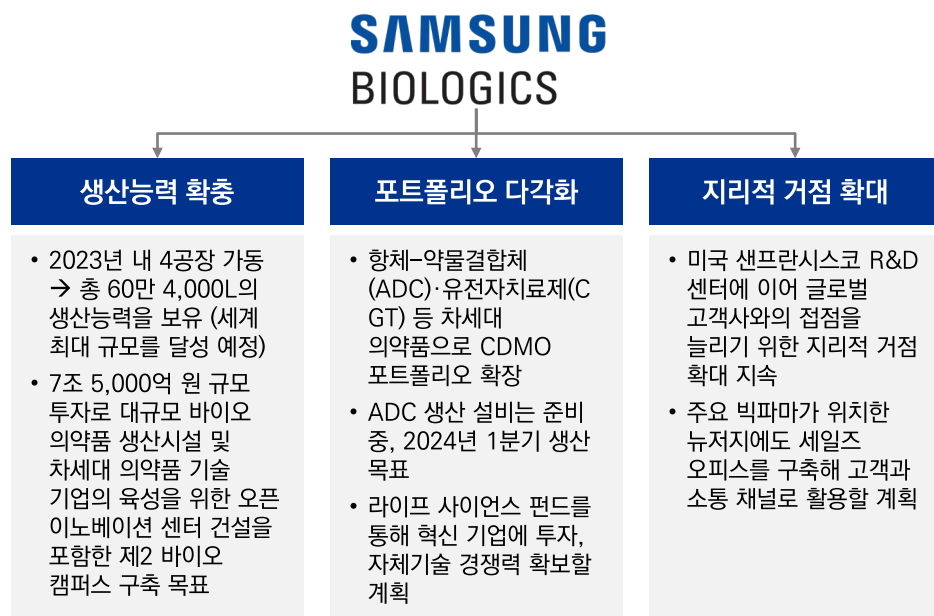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③ 국내 CDMO 기업의 핵심 KPI는 생산능력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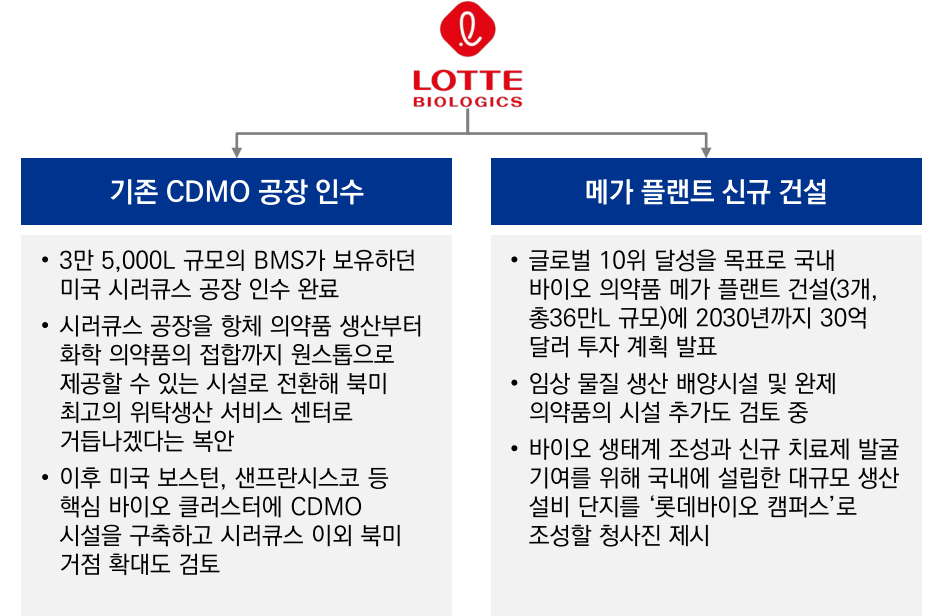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개발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한 전략으로 바이오 CDMO의 중요성이 커지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 국내 CDMO 기업들은 설비 확장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성장 축에 집중하여 경쟁력 강화 목표

롯데바이오로직스: 기업 내외부 성장 전략으로 글로벌 10위 달성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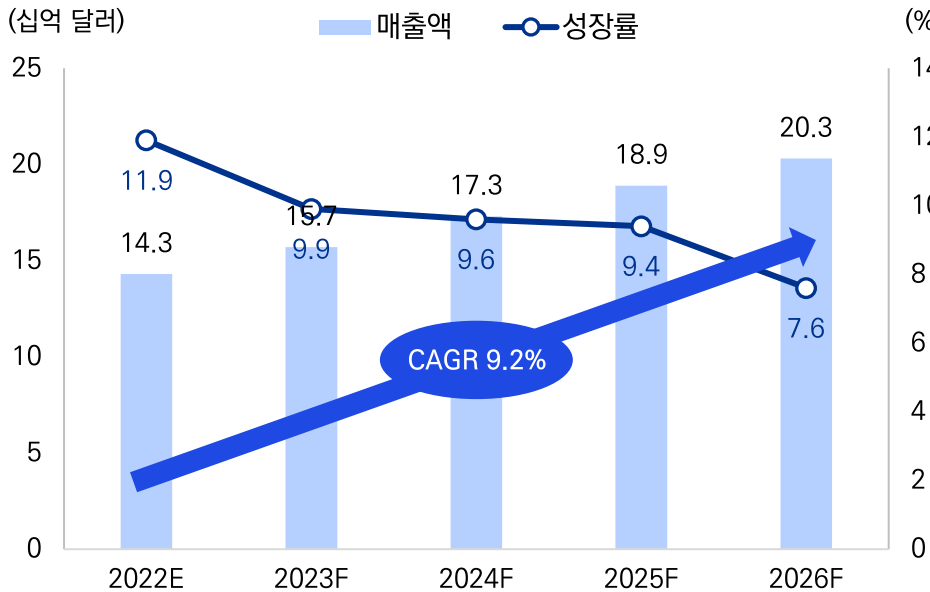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③ [참고] 바이오 CDMO의 시장규모 및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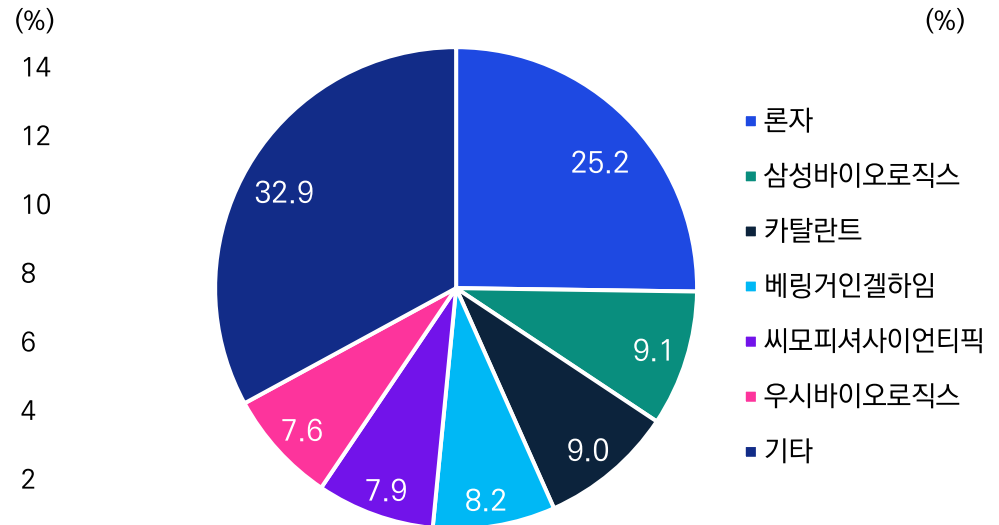
바이오 CDMO 시장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 성장, 코로나19 이후 생산안정성 확보를 위한 분리생산 수요 증가로 인해 2022년부터 연평균 9.2%로 성장 중이며 상위권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설비 확장 및 자체 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양상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규모



Source: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1)

글로벌 바이오 CDMO 시장점유율



Source: 한국신용평가(2022)
Note: 2020년 기준

국내 참가 기업 주요 발표 내용

| 참여 형태 | 기업명 | 주요 발표 내용 |
|------------------|----------|---|
| 메인 트랙 발표 | 삼성바이오로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년 연속 메인 트랙 연사로 2022년과 동일하게 존립 대표 발표 2022년 주요 성과 및 생산 능력, 사업 포트폴리오, 글로벌 거점 등 3대 성장축을 기반으로 2023년 사업 방향, 중장기 비전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4공장(24만L) 완공되면 총 60만 4,000L로 생산능력 확장 제2바이오 캠퍼스에 7조 5,000억 원 투자하여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및 차세대 의약품 기술기업의 육성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건설 계획 항체약물접합체(ADC)와 유전자치료제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세일즈 오피스를 구축하는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한 지리적 거점 확대 지속 |
| 아시아태평양·중남미 트랙 발표 | 롯데바이오로지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내 CDMO 사업 및 국내 바이오 메가 플랜트로 CDMO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적으로 인수 절차 마무리한 미국 시러큐스 공장 운영 방안 및 사업 방향 제시 국내에 2030년까지 총 30억 달러 투자해 연간 생산능력 12만 L의 공장 3개(총 36만 리터) 건설 예정 |
| | 에스디바이오센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수 마무리 단계인 '메리디언 바이오사이언스'와의 사업 시너지 효과 및 미국 시장 진출 발표 연내 최소 10개국 직판 체제 구축 목표로, R&D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업체나 해외진단업체 유통사 위주로 전략적 M&A 계획 |
| 파트너링 미팅 | 강스템바이오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임상 3상 결과가 예정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퓨어스텝-에이디주'의 세포동결 방식을 통한 글로벌 시장 공급 및 셀뱅킹을 통한 최대 생산량 300만 바이알 확보 등을 공유 동물시험에서 확보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골관절염 치료제 '퓨어스텝-오에이 키트주' 등 주요 파이프라인 소개 |
| | 에스티큐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1년여 만에 임상 1상 종료 예정인 면역관문억제제 '넬마스토마트(hsT810)' 관련하여 빅파마와 기술수출 등 전략적 파트너십 논의 |
| | JW중외제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모치료제 'JW0061' 최신 연구 결과와 향후 개발 전략 발표, 기술제휴 논의 |
| | 메드팩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뼈질환 치료 바이오의약품, BAG2 단백질 등 혁신 신약(First in Class) 개발 관련 기술수출 논의 |
| | 파로스아이바이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신약 개발 플랫폼 '케미버스(Chemiverse)' 소개 및 케미버스를 통해 도출한 'PHI-101', 'PHI-501' 등 희귀 질환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 및 파트너십 기회 모색 |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3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간 중 발표된 투자

2023년 1월 13일 기준 글로벌 M&A 및 기술이전 계약 사례로 7건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본 행사 중 발표된 거래 중 최대 규모의 거래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미국 바이오 기업인 신코파마를 18억 달러에 인수한 것으로 파악

| 구분 | 인수기업명 | 피인수기업명 | 피인수기업 주력 분야 | 거래규모 | 비고 |
|-------------|-------------|---------------|-------------|---------------|---|
| M&A | 아스트라제네카(영국) | 신코파마(미국) | 심장·신장질환 | 18억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트라제네카는 알도스테론합성효소 억제제(ASI)인 '박스드로스타트(CIN-107)'를 파이프라인에 추가 |
| M&A | 키에시파마(이탈리아) | 엠릿파마(영국) | 희귀 질환 | 14억 8,000만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키에시파마는 희귀질환 의약품 포트폴리오 확장과 관련 혁신 기술 습득 |
|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 일라이 릴리(미국) | 티렉스바이오(미국) | 세포치료제 | 11억 5,500만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역 관련 질환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 일라이 릴리는 티렉스바이오의 세포치료 신약물질 3개에 대한 독점 권리를 확보 |
| M&A | 입센(프랑스) | 알비레오파마(미국) | 희귀 간질환 | 9억 5,200만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센은 알비레오 인수로 희귀질환 사업부를 강화 |
| M&A | 바이오엔테크(독일) | 인스타딕(영국) | 인공지능(AI) | 5억 6,200만 파운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이오엔테크는 2019년부터 인스타딕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신약 개발을 위한 제휴를 맺어 옴 |
| 공동개발 | 애브비(미국) | 애니마 바이오테크(미국) | mRNA 조절 약물 | 5억 8,200만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mRNA 조절 저분자 합성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개발 계약 |
| M&A | 퀴아젠(독일) | 베로젠(미국) | DNA 생체측정 | 1억 5,000만 달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퀴아젠은 차세대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패널과 유전자 코드 분석기술 등 베로젠 포트폴리오 활용 가능 |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Business Contacts

제약·바이오 전문팀

Audit

변영훈
부대표
T 02-2112-0506
E ybyun@kr.kpmg.com

조승희
전무
T 02-2112-0846
E seungheecho@kr.kpmg.com

지동현
상무
T 02-2112-7662
E dchi@kr.kpmg.com

이주영
상무
T 02-2112-7881
E jooyounglee@kr.kpmg.com

엄준식
상무
T 02-2112-7858
E junsikuhm@kr.kpmg.com

박상훈
상무
T 02-2112-7839
E sanghoonpark@kr.kpmg.com

나재광
상무
T 02-2112-6877
E jra@kr.kpmg.com

home.kpmg/kr
home.kpmg/socialmedi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3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